



###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 곡성·구례·함평군수

#### ■ 곡성군수



고현석 (63) 우당



허기하 (57) 민주당



박정하 (50) 무소속



조형래 (57) 무소속

현직	곡성군수	정당인	곡성신문 발행인	지역업
학력	중앙대 대학원	조선대 경제학과 재학	전남대 행정대학원	한양대 법학과
주요경력	농협중앙회 조사부장	5. 6. 7대 전남도 의원	재광곡성군청년항우회장	곡성낙농육우협회장
병역	중위 제대	해군 인기 제대	이병 의기사 제대	육군이병 복무완료
재산	5억4천592만3천원	5천500만원	8천만원	1천962만9천원
주요공약 (3가지)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병행추진 -육아와 자녀교육 지원 -종합노인복지시설을 갖춘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농촌발전기회단 신설, 농업예산 25~30% 인상 -노인복지예산 및 무료급식 확대, 주민봉사단 운영 -1950~60년대 일화세트장 추진, 섬진강 보성 강 등 드라이브코스 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관광레저도시건설 -곡성의 향토시 관광상품화 -새로운 노인복지행정 시현	-농업분야 집중투자 육성 -3개권역별 성장인프라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 -노인복지 시책추진

#### ■ 구례군수



서기동 (57) 우당



전경태 (58) 민주당



이몽룡 (60) 무소속

현직	정당인	구례군수	무직
학력	서울 경동고	순천 농림고 3년 중퇴	구례농고
주요경력	11대 구례읍장	구례군수	구례보건의료원보건의사과
병역	병장 인기 제대	병장 인기 제대	병장 인기 제대
재산	2억4천234만9천원	6억4천529만원	답변 거부
주요공약 (3가지)	-시찰관광문화권과 온천을 연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산동 온천지역 케이블카 조기 추진 확정 -노인복지정책 추진	-세계야생화 엑스포 개최 -친환경농업 전 지역 실시 -장수복지단지 건립	-군수직속의 투자유치단을 상설 기구화해 농촌형산업의 집중육성 -체류형 관광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구노령화로 인한 복지정책의 확대

#### ■ 함평군수



안병호 (58) 민주당



이석형 (47) 무소속

현직	정치인	함평군수
학력	목포 제일정보고 재학중	전남대 행정대학원
주요경력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12년	함평군수2선
병역	미필	병장 인기 제대
재산	파악 중	2억2천5백만원
주요공약 (3가지)	-군수 관사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친환경 고부가가치 특산물개발 -10만 인구 유입책 마련	-다변화농업을 통한 경제, 문화 관광, 생활산업 육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문화 건설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함께 생태문화체험관광

##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민위한군정' 다짐

#### ■ 곡성군수

곡성군수 자리는 열린우리당 고현석, 민주당 허기하, 무소속 박정하, 역시 무소속의 조형래 후보가 나서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고현석 후보는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을 정도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그는 서울대 재학 시 농촌운동을 시작, 농업에 취

수의 벽이 높긴 하지만 3선과 당직 변경에 대한 거부감을 과고 든다는 전략이다. 그는 나이가 부자 곡성을 위해 "농촌발전 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농업 예산을 25~30%까지 인상하고 명문학교 가꾸기 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군청 내에 기업유치특별팀을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조형래 후보는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토대로 곡성군 농민회를 조직하는 등

#### 우리당·민주당·무소속 후보 각축 농업예산 확대·관광산업 활성화

직해서도 이를 놓지 않았다.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그는 지난 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 잇달아 승리하며 민선 2·3기 군수를 지냈다. 그는 "자녀교육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정책, 농촌관광 프로젝트 등이 모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난 군정을 평가한 뒤 "민선 4기에는 이같은 사업들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하고 농촌복합생활공간을 조성, 곡성군이 노장청이 어울린 정상적 인구구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기하 후보는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장과 3선 도의원을 지내면서 다진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이 핵심이겠다며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고 군

농민운동에 앞장섰다. 때문에 그가 내세우는 모토는 '농민 군수'다. 그는 이를 위해 "곡성군은 전체 군민의 70%가 농민인데 농업 부문 예산은 170억원으로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농업 예산을 20%로 확대하는 등 군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농촌관광사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농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무소속 박정하 후보는 16년 전부터 재광곡성항우회지 '섬진강'을 발간해 왔으며 지난 99년에는 곡성신문을 창간한 인물. 지역 향토사를 상품화해 곡성에 작정 규모의 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세계 최고의 관광지 '잘사는 구례' 역점

#### ■ 구례군수

전남 최고 관광지의 하나인 구례군의 수장 자리에는 3선을 노리는 전경태 민주당 후보를 비롯, 열린우리당 서기동, 무소속 이몽룡 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던졌다. 민주당 전경태 후보는 민선 2~3기 지방 자치의 모범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구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그는 또

10년, 구례군청에서 17년을 근무한 행정전문가로 통한다. 재산 군수의 벽이 높긴 하지만 3선에 대한 거부감과 민주당 공천 관련 잡음을 과고 드는 한편, 여당 후보의 장점을 내세운다는 생각이다. 그가 내세우는 군정은 '정직과 화합'이다. 그는 "공설운동장과 골프장 등 건설 등 각종 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 불만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화합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 지역발전 기틀 마련 '진정한 일꾼' 적극적 투자유치·농촌형산업 육성

민선 4기를 통해 전국 나아가 세계 속의 관광지로 구례를 가꿀 각오다. 그는 이를 위해 개발보다는 보존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세계 야생화 엑스포 개최 ▲10만평 규모의 축수 지리산 건설 ▲장수체험장 운영 ▲온천 골프장 건설 ▲산수유 테마파크 건설 ▲섬진강 토산어류생태관 설치 등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즉 최소 개발로 부자 구례를 만드는 것이 전 후보의 민선 4기 전략인 것이다. 그는 또 "늘어나는 관광객을 농민 소득 증대에 연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는 전남도청에서

그는 또 광양만권 통합 광역도시에서 구례군을 편입되도록 하고 구례를 전국 최초의 실버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동면 온천지구에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몽룡 후보는 구례에서 나고 자랐으며 구례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그야말로 순수 구례인인 점을 내세운다. 누구보다 구례 실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권위주의 군정을 탈피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타협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군수 직속의 투자유치단을 상설기구화해 외부 자금 유입과 농촌형산업의 집중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나비·곤충엑스포' 성과 농산물 브랜드 공방

#### ■ 함평군수

함평에서는 나비축제를 바탕으로 3선에 도전장을 던진 무소속 이석형 후보와 민주당 후보로 앞세워 선출된 3선 축협조합장 출신의 안병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 안병호 후보는 5~7대 연속 함평축산농협조합장을 맡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조직력과 정

군정이 군민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나비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인기에만 치중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지난 8일 막을 내린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마칠 만큼 '나비'에 대해 애정이 많다. 그는 "나비"를 통해 함평군을 세계 속의 자치단체로 알렸다고 자부한다. 주민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 현직 군수 3선 축협조합장 맞대결 혁신경영 능력·강한 추진력 자부

치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 94년 200억원이던 축협 자산을 12년 만에 1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또 함평천지 한우셀비프를 전국적 브랜드로 키우는 등의 공로로 지난 2005년 농업경영혁신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함평군민의 70%가 연간 850억 원 상당의 쌀을 생산하지만 인지도 높은 쌀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해 잔국 표준치 쌀값에 미치지 못하게 팔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민선 4기 군정을 이끌면 쌀 브랜드를 개발, 쌀 소득을 최소 1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가장 비판적인 것은 함평을 전국의 브랜드로 알린 '나비축제', 그는 "모든

대해 그는 "입장 수입과 행사장 내 수입만 계산하지 말고 이와 연관된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나비축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이 때문에 나비축제는 혁신행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선정되고 있으며 나비 2005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비축제로 농외소득 창출의 계기를 만들고 기아·삼성 협력업체·골프장·함평순돌해안마리나를 유지하는 등 민선 2·3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4기에는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현재 70억원인 군세를 200억원으로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 침대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침대 모델을 소개합니다.

시몬스 침대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침대 모델을 소개합니다.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TORCH)는 사무용 의자, 책상, 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소개합니다.

토치(TORCH)는 사무용 의자, 책상, 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제품을 소개합니다.